



지난 29일 밤 광주시 북구 용봉동 H호프 앞 횃단 보도, 치안도우미 10여명이 윤재문(왼쪽에서 두번째) 광주북부경찰서장과 함께 행인들에게 범죄예방요령이 담긴 흥보전단지를 건네고 있다.

/위치기자 jwi@

광주 북구 자경단 떴다

(自警團)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치안봉사활동 도우미'들이었다. 시민과 경찰이 허나되는 일종의 '민·경 협력치안'인 셈이다. 지난 15일 모집을 시작하자 보름 만에 160여명의 치안도우미가 모였다. 자영업자, 주부, 회사원 등 직업도 다양하다. 연령층은 30~60대까지 폭넓다.

북부경찰 '치안 도우미' 160여명 활동

취약지 순찰·전단지 배포 방범 나서

이들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경찰관들과 함께 방범 활동은 물론, 범죄 예방 흥보전단지 배포 등 다양하게 된다.

치안도우미들의 첫 활동이 시작된 지난 29일 밤 8시, 광주시 북구 용봉지구 H호프 상가 앞 횃단보도, '명예 경찰'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치안도우미 60여명이 '설날 전후 이런 범죄 조심합시다. 편의점 상대 범죄예방 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치안도우미들은 주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행인들에게 흥보전단지를 배포했다. 행인들이 버린 흥보전단지를 다시 주워 챙기는

열성도 보였다.

이 일대 Y편의점에 들른 치안도우미 최기영(45·북구 풍활동)씨는 "방범 장비는 구비됐나요"라는 말과 함께 "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한 번 읽어보세요"라며 종업원에게 전단지를 건넸다.

같은 날 밤 9시 북구 용봉동 M아파트 주차장, 치안도우미와 경찰관 10명이 한 조가 된 방범팀은 범죄 취약지 순찰을 돌았다. 북부경찰 김인수(56) 경위는 "지층아파트는 강·절도범의 표적이다. 발코니에는 쇠창살 창문을 달고 애어건 실외기 등 외부인이 발을 딛

고 올리실 수 있는 발판은 미리 없어야 한다"며 치안 도우미들에게 범죄 예방 요령을 설명했다.

치안도우미로 참여한 주부 김정영(여·52·북구 운암동)씨는 "수년 전 발코니에서 빨래를 하는데, 절도범이 가스 배관을 타고 남의 집에 침입하더군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당시 경찰에서 '발코니에서 일할 때 아파트 앞 등을 잘 살펴보라는' 전단지를 배포 했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2시간 동안 북구 용봉지구를 비롯해 전남대 후문, 문흥동 세티코아, 운암동 경신하고 사거리, 두암신협 삼거리 등 범죄 취약지구를 돌며 봉사활동을 벌였다.

윤재문 북부경찰 서장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급격히 들어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힘을 보태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최초로 민·경합동 방범 예방팁을 구성한 만큼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대학생 75% '학자금 대출 스트레스'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학생 대부분은 한번쯤 학자금을 대출 받아 본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심적 부담이 크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30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대학생 990명에게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74.8%

가 '있다'고 응답했다.

대출 방식은(복수응답)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89.2%)'이 가장 많았다. '시중 은행(16.8%)'과 '친척이나 지인'(6.5%)을 통해서 빌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부업체'(2.4%)나 '카드대출 서비스'(2.2%) 등을 이용해 빌렸다는 대학생도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 대학생 중 대다수인 82.3%는 신용불량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취업 후 상환해야 할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 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빨리 취업 해야 한다는 압박감'(40.1%, 복수응답)이 생기고 '방학 때마다 등록금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 불면증 등 을 겪는다'(35.6%)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대 총장 선거 5월21일"

임용추천위 잠정 결정

전남대학교 18대 총장선거일이 오는 5월 21일로 잠정 결정됐다.

전남대는 29일 오후 임용추천위원회 회의를 갖고 총장선거 본선거를 5월 21일 치르기로 했다. 정확한 일정은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직·간접 방식이 병행되는 이번 선거를 위해 총장 후보 압축을 위한 간접선거 등 세부일정을 정한 뒤 후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후보 선정위는 단과대학 교수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된 교수 120명

과 대학 직원 12명 등 132명으로 구성돼 입지자 중 총장의 자질을 갖춘 4명의 후보를 선정하며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본선거)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가려진다.

한편 현재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교수들은 ▲김윤수(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김현배(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박남국(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박형호(경영대학 경영학부) ▲송정민(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오재일(법과대학 행정학과) ▲이병택(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홍기문(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등 8명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목포대 신입생 등록금 14.2% 인상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국 대학이 등록금 인상폭을 놓고 학생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목포대가 신입생 등록금을 두자릿수인 14.2% 올렸다.

30일 목포대에 따르면 목포대와 총학생회는 지난 4일부터 9차례에 걸친 등록금 협상 끝에 신입생 14.2%, 재학생 9.5% 인상에 합의했다.

목포대 외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6~8% 가량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학생 기준으로 호남대는 6.9%, 광주대와 전남 나주동신대는 6.5%를 각각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전남대는 기성회비 8.6%, 입학금·수업료 각각 5%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조선대도 7% 인상인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사립 대학들의 등록금은 연간 액수 기준 인문사회 계열이 500만~600만 원대, 공대가 700만~800만 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금이 가장 높은 조선대 의치학 계열은 974만 6천 원으로, 1천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일부 대학에서는 예산서까지 공개하며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부분, 대학본부 점거, 3보 1배 등 대학과의 신학기 풍경으로 자리 잡은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은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작가 황규태, 신정아 누드 찍었다"

미술전문지 보도

사진작가 황규태(70)씨가 작년 9월 문화일보에 실린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과 관련, "5~6년 전 성북동 작업실에서 찍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술전문 객주간지 '아트레이드'가 30일 밝혔다.

아트레이드는 중앙일보 문화전문 기자 출신인 조우석 씨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황씨와 주고받은 20여 차례의 국제전화와 편지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2월 1일 발행되는 잡지에 게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황규태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신정아의 학력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위 학력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으로 미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황씨는 문제의 사진과 관련, "사석에서 몇 차례 신씨에게 제의해 신씨 동의 아래 직접 찍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추여 여성 사진작가인 A씨가 5년 전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사진을 뒤져 창겨웠던 것으로 A씨는 훔친 누드 사진으로 신정아를 따로 만나 괴롭혔다"고 말했다. 신씨는 작년 9월 '시사IN 창간호'와의 인터뷰에서 누드사진 활용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황씨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신정아의 학력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위 학력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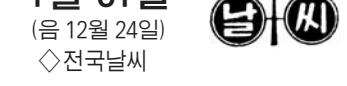
동장군 기승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오겠다.

1월 31일

(음 12월 24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3~3°C
포항	구름 많음	-2~3°C
여수	구름 많음	-2~3°C
원주	구름 많음	-6~3°C
제주	구름 많음	-3~3°C
해남	구름 많음	-3~4°C
남해	구름 많음	-6~4°C
전주	구름 많음	-4~2°C
원주	구름 많음	-1~4°C
원주	구름 조금	-5~2°C
원주	구름 조금	-7~2°C
원주	구름 많음	-1~1°C

서해남부
안나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만나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남해서부
안나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만나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07:53 썰물 13:34

여수 밀물 02:52 썰물 09:11

14:33

▲해뜸 07:33 ▲해침 17:59 ▲달뜸 01:45 ▲달침 11:50

기상안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씨

최저/최고

조직개편안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원내 대수당인 대통령민주신당은 이를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체육연대 소속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나라당 광주시당 층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0여 명의 경찰을 동원했으나 우려했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장애인체육연대 회원들이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 전환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선 이후 한나라 당사 앞 첫 집회

장애인 단체 "인권위 대통령 직속 반대"

한나라당이 10년만에 집권당으로 복귀한 가운데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광주 장애인체육연대 소속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나라당 광주시당 층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0여 명의 경찰을 동원했으나 우려했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인수위의 정부

반응을 보였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700 665 700 675 700 685 700 695 700 705 700 715 700 725 700 735 700 745 700 755 700 765 700 775 700 785 700 795 700 805 700 815 700 825 700 835 700 845 700 855 700 865 700 875 700 885 700 895 700 905 700 915 700 925 700 935 700 945 700 955 700 965 700 975 700 985 700 995 700 1005 700 1015 700 1025 700 1035 700 1045 700 1055 700 1065 700 1075 700 1085 700 1095 700 1105 700 1115 700 1125 700 1135 700 1145 700 1155 700 1165 700 1175 700 1185 700 1195 700 1205 700 1215 700 1225